

“아사니가 또 해냈다”

광주FC, ACLE 5차전 상하이 선화전 1대0

교체 투입 20초만에 득점포... '7골' 득점 단독선두
승점 3 더한 광주, 동아시아그룹 2위... 16강 '눈앞'



광주FC가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무대에서 상하이 선화(중국)를 꺾고 K리그의 자존심을 지켰다.

광주FC는 지난 2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ACL E리그 스테이지 5차전에서 아사니의 결승골을 앞세워 상하이 선화를 1대0으로 꺾었다.

이날 승리로 4승1패(승점 12)를 기록한 광주는 빙셀 고베(4승1무·승점 13)에 이어 동아시아그룹 2위를 유지했다.

광주는 김경민이 골문을 지키고 김경재와 변준수를 센터백으로 배치했다. 좌우 풀백에는 김진호와 이민기, 중앙 미드필더에는 박태준, 정호연, 이희균을 기용했다. 공격에는 오호성과 최경록을 좌우 날개로, 허을을 원톱에 세웠다.

광주가 킥오프와 동시에 상대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광주는 전반 내내 경기를 주도하며 여러차례 기회를 잡았지만 상하이 선화의 골문을 열지 못했다.

추가 시간이 흐르던 전반 40분 허을의 선제 골이 터졌다.

최경록이 페널티박스 오른쪽에서 띄워준 공을 골문으로 쏘아넣었다. 허을이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VAR(비디오판독시스템) 판독 결과 이전 상황에서 상대 공을 빼앗던 정호연의 반칙이 인정돼 득점이 취소됐다.

아쉬움도 잠시, 후반 교체 전력이 주효한 광주가 기다리던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정호 감독은 후반 12분 벤치를 지키던 아사니를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고, 오호성을 대신해 투입된 아사니는 20초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다.

후반 13분 코너킥 이후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허을이 머리로 떨어뜨려 주자 쏘아넣던 아사니가 첫 볼 터치인 원발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아사니는 앞서 요코하마 F마리노스전 헤트트릭, 가와사키 프론탈레전 1골, 조르호 다를 탁집전 멀티골에 이은 대회 7호골을 신고하며 득점 부문 단독 선두를 지켰다.

광주는 이후 상하이의 거센 공격을 견고한 수비로 막아내며 여러차례 추가골을 향한 역습을 시도했다.

종료 직전 정호연의 땅볼 크로



지난 2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ACL 스테이지 5차전 상하이 선화와의 경기에서 후반 교체 투입과 동시에 득점포를 터뜨린 아사니가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광주FC 제공〉

스가 골문 앞에 홀로 서 있는 이견희에게 향했지만 오프사이드로 선언됐다. 곧바로 종료 휘슬이 울리면서 광주가 ACL E리그 4번째 승리를 기록했다.

동아시아 지역 12개 팀 중 8개 팀

이 진출하는 16강을 눈앞에 둔 광주는 다음달 3일 오후 9시 상하이 푸둥스타디움에서 ACL E리그 6차전 상하이 하이강과의 원정 경기로 올해 경기를 마무리한다.

/박희중 기자

2024 기아타이거즈 V12 축승연



지난 27일 열린 KIA 타이거즈 우승 축승연에서 송호성 구단주, 이범호 감독, 나성범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V12' 축승연 성료

호남 지역 유소년 야구부에 특별 격려금 7억 1천만원 지원

KIA 타이거즈의 12번째 우승을 축하하는 축승연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7일 KIA 타이거즈의 2024 KB O 리그 통합 우승과 12번째 우승을 기념하기 위한 우승 축승연이 남구 소재 광주실감콘텐츠클럽에서 열렸다.

사전 행사로 이날 오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아마추어 야구 발전을 위한 유소년 야구 클리닉 '야구 꿈나무 코칭 클래스'가 진행됐다.

본 행사에서는 우승 세리머니, 선물 교환식 등이 거행됐다.

선물 교환식에서는 송호성 구단주가 이범호 감독과 주장 나성범에게 우승 반지와 축하 선물을 전달했으며, 선

수단은 답례의 의미로 사인 유니폼과 사인볼을 건넸다.

이날 행사 중 아마추어 야구 발전을 위한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다.

KIA는 호남 지역 27개 초·중고 야구부에 총 7억 1천만원의 특별 격려금을 전달했다.

KIA 구단은 “유소년 야구가 한국 야구의 미래라 생각하고 호남 지역 유소년 야구부에 특별 격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팀의 우승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함께할 수 있어 뿌듯하고, 앞으로도 유소년 야구 발전에 힘쓰는 구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주홍철 기자

KIA, 광주 영아일시보호소에 사랑의 기금 전달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펼쳤다.

KIA는 28일 광주 동구 소재동에 위치한 대한사회복지회 광주 영아일시보호소를 찾아 '사랑의 기금'을 전달했다.

투수 이준영과 전상현이 김근오 밝은안과2병원장과 함께 영아일시보호소를 방문해 직접 기금을 전달했다.

(사진)

이날 사랑의 기금 전달식에 참석한 이준영은 “팬들이 주신 사랑을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드릴 수 있어 뿌듯하다”며 “이런 뜻 깊은 자리는 처음인데 기



분이 남다르고 앞으로도 선행을 꼭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2024시즌 동안 이우성, 양현종, 장현식, 김도영, 전상현 등이 수상한 밝은안과2병원 월간 MVP 상금 중 일부를 적립한 것이다.

/주홍철 기자

이한비 ‘날았다’ AI페퍼스 ‘연승’

정관장 꺾고 5위...내달 3일 흥국생명 상대 3연승 도전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시즌 첫 연승을 거두며 3승째를 쟁겼다.

AI페퍼스는 지난 27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V리그 정관장과 원정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1(25-16 17-25 25-23 25-20) 승리를 거뒀다.

지난 22일 폴세트 점전 끝에 한국도로공사를 꺾고 기나 긴 7연패를 탈출한 AI페퍼스는 이날도 승리하며 시즌 처음이자, 창단 후 두번째 연승에 성공했다.

승점 3을 더한 AI페퍼스(3승 7패·승점 9)는 한국도로공사(2승 8패·승점 8)를 제치고 5위로 올라섰다.

이한비와 테일러 프리카노의 활약

이 돋보였다. 공격 성공률 56%를 기록한 이한비가 20득점, 대세 선수로 합류해 리그에 적응한 테일러 프리카노가 19득점을 올렸다.

블로킹에서 11대3으로 압도했다.

AI페퍼스는 잦은 범실로 무너진 정관장을 압도하며 1세트를 가져왔다.

2세트는 범실을 줄인 정관장에게 주도권을 내주며 세트를 내줬다.

3세트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정관장이 세트 중반까지 앞서 나갔으나 추격에 나선 AI페퍼스가 18-18 동점에 이어 19-18 역전에 성공하며 승기를 잡고, 테일러의 킥오프, 장위의 속공으로 25-23으로 마무리했다.

분위기를 가져온 AI페퍼스는 4세트에서도 점수차를 벌리며 앞서갔고, 이한비와 테일러의 쌍포를 앞세워 가



지난 27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V리그 정관장과 원정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한 AI페퍼스 테일러가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KOVO 제공〉

범계 25-20으로 승리, 2연승을 기록했다.

AI페퍼스는 내달 1일 광주 페퍼스

타디움(염주체육관)에서 여자부 1위 흥국생명을 상대로 3연승에 도전한다.

/박희중 기자

광주시당구연맹 ‘송년회·문화의 밤’

선수단 포상금·표창장 수여

광주시당구연맹이 ‘송년회 겸 문화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28일 롯데시네마 충장로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박종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선수단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당구연맹은 ‘제106회 전국체전’에서 포켓10볼 여자일반부 금메달을 획득한 진혜주 선수에게 포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격려했다.

광주시 당구연맹 정기평가전에서 우승한 최완영 선수에게는 상금 100만원, 준우승 황의중, 3위 엄희주·윤태현 선수에게 각각 표창장과 상품을 수여했다.

또 하트치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비보험 진료비 감면 등 할인 혜택을 제공받고 공동 협력해 상호 발전적인 관계가 될 것을 약속했다.

박종규 광주시당구협회장은 “올 한



지난 28일 열린 광주시당구연맹 송년회·문화의 밤 행사에 참석한 박종규 회장과 임원진, 선수단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당구연맹 제공〉

해 많은 도움을 준 임원진과 선수단에 감사사를 드린다”며 “내년에는 전국

체전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광주체육 더 높이, 멀리 날자”

광주시체육회, 제105회 전국체전 관계기관 평가회의

광주시체육회는 28일 광주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종목단체 및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했다.

평가회의에는 광주시 대표선수단으로 참가한 종목 관계자와 광주시체육회 전문체육위원장, 경기력향상위원장, 광주체육교장, 광주시교육청 장학사, 체육지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평가회의에서는 제105회 대회 결과 보고를 통한 주요 성과평가 및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광주시 대표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평가회의의 시작에 앞서 선수단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준 박종규 광주시당구연맹 회장과 김선광 (주)대성포장산업 대표이사 등 14명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도 진행됐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개선방향 등을 제시해 주 감사하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예산확보 및 개선사항들은 앞으로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내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광주시 대표선수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